

박경식(목원대)

1. 들어가는 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많은 군사들을 죽인 어떤 위엄 있고 당당한 전사를 상상하여 보라. 이 숙련된 전사가 어이없게도 집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보며 가사를 주로 하는 어떤 한 여인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하자. 즉, 이 여인이 실로 막강한 전사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어떻게 죽였지? 그 여자가 누구야? 어떻게 그런 숙련된 전사를 죽일 수가 있지?” 일 것이다. 혹 의구심에 찬 다른 이는 “왜 그 여인이 그를 죽인 거지?”라고 물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삿 9:50-54)는 이런 전사와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상상하기 힘든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

www.kci.go.kr

고 있는 것일까?

사사기 9장의 처음부터 화자(the narrator)¹⁾는 과장법(hyperbole)²⁾을 사용하여 아비멜렉의 모습을 영웅처럼 묘사한다. 화자는 아비멜렉은 우수한 설득력으로 경제적 군사력 자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군인으로서의 아비멜렉의 이미지들을 부풀려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비멜렉이 그의 칠십 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살해하였다는 기사이다. 또한 그는 세겜(Shechem)성의 도시 감독관 스불(Zebul)을 가볍게 물리치고 세겜성을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삿 9:45). 사사기 9장 1절부터 49절까지 아비멜렉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남자 혹은 어떤 힘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화자는 과장법적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아비멜렉의 사회적 영향력과 육체적 힘의 한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이야기 기교(narrative strategy)를 ‘과영웅화(hyper-heroization)’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물-예를 들어 주인공-이 과영웅화의 정점에 도달하면 화자는 그 능력을 없애고 영웅화된 인물의 모호성(ambiguity)을 노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어지는 본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여자는 아비멜렉보

1) 화자(話者, narrator)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서사문학에서는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요소이며, 화자가 없이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글의 저자(들) 혹은 편집자(들)와의 다른 점은 화자는 독자가 듣고 있는 마지막 텍스트(final form of the text)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수단이며 독자(audience)를 근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2) 과장법(hyperbole)은 수사적인(rhetorical) 효과를 강화하고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literary device)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이라고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팻노(Elizabeth Patnoe)는 과장법이란 “과장된 문장들이나 주장들로서 그것을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하라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제시한다. Elizabeth Patnoe, “Hyperbole”, Theresa Enos(ed.),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Garland Pub, 1996), 334-33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7. 3. 28. 참조. James R. Kreuzer, *Elements of Poetry* (New York: Macmillan, 1955), 110; Joseph T. Shipley,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Terms, Forms, Technique, Criticism* (Boston: Writer, 1970), 216.

다 높은 위치에 서 있었고, 간단히 맷돌 위쪽(upper millstone) 하나를 그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그녀의 백성들에게 가해졌던 위협적 요소는 가볍게 사라졌고, 동시에 아비멜렉의 위력도 사라졌으며 독자(audience)가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주목하듯 영웅적 요소는 그녀에게 전도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필자는 이 아비멜렉의 무력화 과정을 ‘탈영웅화(de-heroization)’라고 칭하고 새로이 영웅적 요소를 받아 독자의 초점을 움직이는 이 문학기교를 ‘전영웅화(trans-heroization)’라 칭하고자 한다. 즉 전영웅화는 이전 영웅의 고조된 능력이 상실되면서 영웅화의 초점이 다른 이로 넘어가는 독자의 반응을 의미한다. 이 세 단계의 영웅화 변경을 “세 개의 불명예 패턴(tri-dishonoring pattern)”이라 부르며, 사사기 9장 52-54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아비멜렉, 이름 없는 여인, 청년)간에서 나타나는 이 패턴은 각 인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능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비멜렉의 죽음 이야기 안에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세 개의 불명예 패턴들은 독자가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정치적, 혹은 이념적 구조에 대항하는 제안(counterproposal)이나 모호성을 이용하는 편집자의 의도 가운데 그 목적을 강조하고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며 화자가 어떻게 이 세 개의 불명예 패턴들을 사용하여 아비멜렉과 다른 등장인물들을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화자의 의도를 숨겨 있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사사기 9장 연구에 대한 전역사를 통시적 비평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 본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서사이론(Narratology)과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 Criticism)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고, 본문에서 적용점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학적 접근(socio-historical

approach)을 위한 방법론으로 명예/수치 연구(honor/shame study)와 젠더비평(gender criticism)을 논의하고, 연구 본문의 해석을 시도하는 간학문적 연구(intertextual study)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언급된 방법론들을 중심으로 아비멜렉 이야기를 연구하여 본문에 사용된 특별한 문학기교를 살피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사기 9장에 대한 연구사

일반적으로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잔 니디치(Susan Niditch),³⁾ 하녹 레비브(Hanoch Reviv),⁴⁾ 나오미 스톤버그(Naomi Steinberg),⁵⁾ 그리고 조지 콰잇(G.R.H. Wright)⁶⁾과 같은 학자들은 본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모순점을 찾아내며 이전에 간과했던 점들을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전체 이야기의 역동적인 사회학적 배경과 왕권(kingship)을 설립하려는 시도에 대한 묘사 부분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형적인 비평으로 볼크마르 프리츠(Volkmar Fritz)의 논문 “Abimelech und Sichem in Jdc. 9”에서는 본문 안에는 서로 구별된 편집층이 있으며 각 편집층은 다양한 신명기사가 편집가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구성이 발전되며 추가되었다고 하였다.⁷⁾ 그러므로

-
- 3)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14.
 - 4) Hanoch Reviv, “The Government of Shechem in the El-Amarna Period and in the Days of Abimelech”, *Israel Exploration Journal* 16, no. 4 (1966), 252–257.
 - 5) Naomi Steinberg, “Social-Scientific Criticism: Judges 9 and Issues of Kinship”, Gale A. Yee(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6–64.
 - 6) G. R. H. Wright, “The Mythology of Pre-Israelite Shechem”, *Vetus Testamentum* 20, no. 1 (1970), 75–82.
 - 7) Volkmar Fritz, “Abimelech und Sichem in Jdc. 9”, *Vetus Testamentum* 32, no. 2 (1982), 142–43.

독자가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리츠는 또한 마지막 편집 형태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몰락은 불공정한 왕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였다.⁸⁾ 즉 아비멜렉 이야기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회가 요구했던 왕권의 모습에 대한 제시와 평가를 통한 교육적 의미를 제공하는 의도로 본 것이다.

이희학은 아비멜렉이 실제로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위 등극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비참한 실패의 사건이었으며 본문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연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⁹⁾ 아비멜렉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전역사로서 간주되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왕국 탄생의 역사적 발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이 왕위 등극사건이 가나안 도시 국가의 전형인 세겜에서의 군주적 왕국이 지닌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왕권 설립의 지역적 시도로 생각하였다.

이와는 달리 토마스 부가트(Thomas Boogaart)는 그의 논문 “Stone for Stone: Retribution in the Story of Abimelech and Schechem”에서 마지막 편집자가 구성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이야기의 구조는 인과응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왕권의 죄과에 대한 관심은 적다고 반박하였다.¹⁰⁾ 부가트는 프리츠가 나누어버린 여러 편집층들의 본문들이 어떻게 인과응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야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진행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결국 아비멜렉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8) 윗글, 144.

9) 이희학, “사사 시대에 등장한 왕국 건립의 시도들”, 구약논단 12집 (2002), 38-40.

10) Thomas A. Boogaart, “Stone for Stone: Retribution in the Story of Abimelech and Sheche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no. 32 (1985), 53. 아비멜렉 왕국의 탄생에 대한 보도에서는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 주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희학, “사사 시대에 등장한 왕국 건립의 시도들”, 「구약논단」 12집 (2002년 5월), 27-52.

매끄럽게 잘 연결되어 있으며 인과응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문학비평을 통한 접근으로 이야기 안에서 아비멜렉과 다른 등장인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특별히 미케발(Mieke Bal), 켄 스톤(Ken Stone), 그리고 데이빗 길모어(David Gilmore)는 본문의 문화적 배경에서 치욕으로 보이는 여자의 손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다.¹¹⁾ 이들은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의 모호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명예/수치(honor/shame) 혹은 젠더 문제들(gender issues)에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이야기가 그 당시의 문화적 구조 안에서 가치 체계와 그것의 영향력을 본문에 실으려 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간텍스트적 기능을 이념소(ideologeme)¹²⁾라 부르는데 이는 하나의 텍스트 공간 안에 다른 텍스트들이 교차하게 하는 초점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합쳐진 텍스트들이 발전과 동화 및 변형을 거쳐 가져온 텍스트의 총체를 사회적 역사적 컨텍스트와 연관을 맺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23장에서 MT와 LXX의 텍스트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단어 “다시스(MT본문의 “Tarsis”를 LXX에서 “Carthage”로 음역한 것)”이다. 이는 LXX 편집자가 추가적 단어들을 사용하여 사회역사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재편집한 것으로 MT가 전달하는 본문의 내용을 LXX의 컨텍스

11)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Studies in the History of Juda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4-39, 217-224; Ken Stone, “Gender Criticism: The Un-Manning of Abimelech”, Gale A. Yee(ed.),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7), 183-201; David Gilmore, *Honor and Shame and the Unity of the Mediterranean* (Washington, D.C: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87).

12) 이념소(ideologeme)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러시아 후기 형식주의가 제시한 문학적 개념으로 글 속에는 사회·역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요소인 이념소가 들어있으며 “사회의 지배적 사고방식을 집약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다양한 초 언어적 실천들을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한다.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64.

트에 맞게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¹³⁾ 이렇게 이념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쓰여지는 단어들은 단순히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문화와 사회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며, 특별히 발은 어떻게 남자를 죽인 여자들이 신체, 삶, 언어에 대하여 불균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부조화를 소개하는지를 주목하였다.¹⁴⁾ 발이 제시하는 맷돌을 가진 여자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는데, 즉 이 이야기는 수치와 젠더의 이념소들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발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아이러니와 모호성을 발견하고 설명하기를 아비멜렉은 “두 명의 서로 다른 젠더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진영-여자가 속한 남편의 부족과 아비멜렉의 종이 속한 다른 진영-에 의해서도 살해되었다”고 하였다.¹⁵⁾

스톤은 아비멜렉의 죽음 이야기는 젠더에 주목하고 있으며 젠더 분류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주장한다.¹⁶⁾ 그는 아비멜렉은 상징적인 남자 부족의 대표인 여자에 의해 살해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부터 탈남성화의 작업은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톤은 젠더 비평이 독자로서 하여금 아비멜렉의 죽음에는 “사사기의 반사울 논쟁(anti-Saulide polemic)”이 드러나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사사기 9장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위와 같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와 신학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반왕권적인 이야기로 바라보거나 이와는 달리 그들의 의견을 부정하는 편집비평의 논의가 있었다. 특별히 최근에는 서사이론의 다양한 문학적 해석법을 통하여 아비멜렉 이야기를

13) Arie Van Der Kooij, *The Oracle of Tyre: The Septuagint of Isaiah XXIII as Version and Vision* (Boston: Brill, 1998).

14) Bal, *읽기*, 26-33.

15) Bal, *읽기*, 222.

16) Stone, *읽기*, 195-98.

17) *읽기*, 197.

분석하였고, 구조주의비평과 명예/수치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학자들의 이론과 연구를 접목하여 젠더 문제와 본문의 모호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3. 서사이론(Narratology)과 구조주의비평(Structural Criticism)

미케 발(Mieke Bal)은 구조주의 학자들의 개념과 용어들을 발전시켜서 담론이론 혹은 서사이론이라는 분야를 크게 발전시킨 문화이론 학자이다.¹⁸⁾ 서사이론은 이야기(narrative)의 기술과 방법 그리고 전달과 수용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을 이론화한 것으로 이야기 문학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중요한 비평 방법론이다. 발은 서사이론에서는 비평을 하려는 동사의 의미는 어원의 유래와 의미를 꼭 연구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이해와 어원적 이해를 다르게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비평학적 훈련이 시작된다고 믿었다.¹⁹⁾ 더불어 본문 안에서 이야기와 담화를 구분하여 이야기가 전하는 복합적인 정보와 담화로서의 기능으로 그 이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²⁰⁾

서사이론에서 특별히 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은 코드(code)와 초점화(focalization)이다. 먼저 그녀는 ‘코드(cod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호학 이론(semiotic theory)에서 인식은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역사, 신학, 인류학, 문학, 주제 그리고 젠더 코드들로 나누어진다. 발은

18) 구조주의 비평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아 1장 연구”, 『구약논단』 21집 (2006년 8월), 108-124.

19) Mieke Bal, *Murder and Difference: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Indiana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vii.

20) David M. Gunn and Danna Nolan Fewell,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22권 4호 (2016년 12월).

코드의 개념은 기호(semiotic)인데, 의미(semantic)를 중심으로 하는 구분에 관련이 되며 어떻게 기호가 의미를 올바르게 기능하게 하는지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²¹⁾ 특별히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삿 4-5 장)안에 있는 젠더 코드는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힘의 구조를 제거해냄으로써 그 해석이 변화되며 이러한 코드의 분석은 사사기 9장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였다.²²⁾

발은 명예/수치 대립관계가 성별의 차이와 관계가 있고 특별히 집단적인 이익을 위주로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과 요담, 아비멜렉과 이름 없는 여인, 아비멜렉과 그의 갑옷 시종의 관계 등에서도 그 역동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문학적 코드뿐만 아니라 신학 코드, 도덕 코드, 인류학 코드, 역사 코드 등의 여러 다른 코드를 제안하는데 이들은 모두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자신의 성향이 있으며 통합된 코드 간의 연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코드들은 스스로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다른 코드들에 종속된 유기체임을 주장하였다.

발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서사이론학적(narratological) 코드 안에서 초점화(focalization)이다. 이 개념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한 동작이나 물건이 초점화자(focalizer)의 관점이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초점화는 선택된 이야기의 정보로서 화자나 등장인물 혹은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떠한 대상(인물, 사건, 물건, 풍경)도 될 수 있다.²³⁾ 중요한 것은 초점화는 초점화자의 생각의 투영으로서 초점

21) 참조: 윌슨, 6, 86-87, 111.

22) 이 이야기는 시스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인을 그리며 시작하고 힘의 구조는 역시 남자가 여자에게 명령하고 여자가 수종드는 구조이다. 그러나 시스라는 여인에 의하여 죽게 된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삿 4:21)

23) 초점화는 제라드 주네트(Gerard Genette)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나 미케 발이 이를 더 실용화하고 발전

화자의 가치관에 제한된 상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초점화는 특히 주체(subject)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이 구분하는 주체로서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말을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화자가 주체이다. 2)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상상하는 단계에서는 초점이 주체이다. 3) 파블라(fabula)²⁴⁾의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행동의 주체들이 곧 주체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주체의 위치, 이야기에서의 역할, 행동의 분배와 결과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에 접근한다.²⁵⁾ 즉,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핵심적으로 표현되는 대상인 것이다.

발은 코드와 초점화 등을 해석하는 서사이론의 방법론은 우리가 “텍스트의 특징들과 사회학적 의미를 연결하는 연결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제안하였다.²⁶⁾ 그녀는 대화의 이야기 모드는 단지 문학 모드로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역사성 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사회학적 혹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진다고 하였다. 그녀는 어떻게 이야기의 요소들이 정치적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분석의 시작점으로 서사이론을 사용하는 것이다.²⁷⁾ 결국, 발의 서사이론의 관점은 어떻게 이야기가 그리고 그 배경이 특정한 사회적 관습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데이비드 조블링(David Jobling)은 문학적 텍스트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생산물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요소들의 구조화된 패턴을

시켰다. 참고. 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24) 파블라는 문학에서 쓰는 용어로서 작품에 묘사된 사건들의 뒤바뀜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일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25) Bal, *읽글* (1988. 7), 35.

26) *읽글*, 32.

27) *읽글*, 35.

통하여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았다. 그는 텍스트들의 구조주의 분석은 문자를 통하여 알아차린 경향(pattern)들로부터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동해 가는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그는 독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은 오직 패턴에 의한 것이며 패턴은 인식구조를 통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의 실제 의미라는 것이다.²⁹⁾ 다른 말로 하자면, 조블링은 사람이 자료 안에서 특징적인 경향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료들이 인식되도록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과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고유한 구조주의적 분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블링의 접근법인 구조주의 비평은 세 개의 불명에 패턴을 밝히는데 특별히 유용한데 구성된 경향들을 분석함을 통해서 이야기의 구성이나 복잡한 연결점들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발과 조블링에 의하면 텍스트는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패턴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코드들의 집합으로서, 코드들은 그것의 메시지와 함께 정교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초점화와 초점화자에 의해서 재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드로부터 생기는 문학적 신호들과 구조적 체계는 독자들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4. 명예/수치 연구(Honor/Shame Study)와 젠더비평(Gender Criticism)

어떻게 고대 문서들에서 여자에게 살해당한 영웅의 수치가 기능을 하였을까? 왜 여자에게 살해당한 영웅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가? 어떤 메시지를 이 이야기들은 전달하려 하였을까? 젠더 비평은 성별 사이에 연결된 가치의 명예/수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

28) David Jobling, "Structuralist Criticism: The Text's World of Meaning", Gale A. Yee(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91.

29) 윗글, 110.

류학(anthropological literature)에서 명예와 수치에 대한 논점들과 관련되어서는 현재의 이론들은 지중해(Mediterranean) 문화와 중동 지역의 인류학자들 연구를 반영한다. 이 학자들은 문학 간에 적당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념적인 가치 그리고 명예/수치와 관련된 복합성과의 연결점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켄 스톤은 그의 책「Sex, Honor, and Power in Deuteronomistic History」에서 주장하기를 “만약 젠더와 성적 관습이 명성과 연관이 있다면...우리는 어떤 등장인물이 ‘레위인’이나 ‘왕’으로서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 그는 어떤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등장인물이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하였다.³⁰⁾ 그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독자들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인식할 수 있고 사회학적으로 자리 잡은 통념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쉐리 오르너(Sherry Ortner)와 헤리엇 화이트헤드(Harriet Whitehead)가 주장한 가치에 대한 명예/수치 구조의 연구를 더 발전시키며 스톤은 성적 행동은 젠더 역할의 결정적인 중재를 통한 명성의 구조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 알맞게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려면 본인이 그에 적합한 젠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스톤은 성경이나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전쟁에서 남자가 지녀야 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마치 여자가 돼버린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³²⁾ 그의 연구 분야였던 젠더

30) Ken Stone, *Sex, Honor, and Power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96), 40-41.

31) 윗글, 37-46.

32) 윗글, 189.

비평은 지중해 지역의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물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아비멜렉 이야기 안에서 이러한 젠더 역할을 두고 역동적으로 엮여있는 힘의 구조에 대한 모호성 연구에 기여하였다.

저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우리 사회는 “남근 과시적 그리고 남성 중심적 우주론”에 근거한 젠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유지되어온 문화 전통은 이런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지중해 전통의 근본적 인식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그의 주장은 모든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부정할 수 없이 이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명예/수치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배 관계 혹은 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성적 관계(sexual relation)가 통제 혹은 지배에 대한 사회관계(social relation)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바로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 사이의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통하여 구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욕구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표현하며 움직인다. 여기에서 욕구란 두 가지로서 성적으로 표현되는 지배, 즉 소유하려는 남성의 욕구와 성적으로 표현되는 종속성-혹은 제한적이지만 성적으로 표현되는 지배에 대한 인식-으로, 즉 남성 지배를 원하는 여성의 욕구를 말한다.³⁴⁾

부르디외는 젠더의 차이에는 문화적 사회적 습관에 대한 명확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이 기대는 어떤 이중의 원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고대 지중해의 주요 관점에 대한 성 이해와 전통이

33) Pierre Bourdieu, *Masculine Domin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6.

34) 앞글, 21.

아비멜렉 이야기 안에서는 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이 바로 왜 아비멜렉 이야기가 전사를 죽이는 여인 혹은 자기의 주인을 죽이는 갑옷 시중에 대해서 묘사하는지를 묻게 하는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가져오던 규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 명예/수치 그리고 젠더의 역할을 주목하는 접근은 독자들에게 텍스트 안의 등장인물 간에 얽힌 역동적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서 “남성의 힘 중심의 질서”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다.³⁵⁾

이야기가 젠더 구분과 상징(symbol)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성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관점이나 결론을 초래하는 논증적인 도구이다. 젠더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으로서 성서의 화자들은 젠더의 모호성을 사용하는 기술을 통하여 통일된 사회적 규범이나 이해를 해석하며 구성해가려고 노력하였다. 데이비드 건(David Gunn)과 다나 퓨웰(Danna N. Fewell)은 “젠더는 간단히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부장제도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⁶⁾ 그들은 텍스트는 긴장과 모순을 글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읽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부르디외와 스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수치 구조에서 직계제(hierarchy)와 젠더의 차이에 대한 시스템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논의에 의하면 젠더 비평은 엄격한 이중적 단어들(예를 들어, 남성 대 여성, 수컷 대 암컷)의 한계를 거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스톤에 의하면 젠더비평은 역할을 분석하며 사회와 문화 안에서 젠더의 중요

35) 윌클, 9.

36) Gunn, 윌클, 196.

성을 추구하며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을 약화하며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문제화한다는 것이다.³⁷⁾ 명예와 수치와 연결되어 있는 젠더 비평은 본 연구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젠더 비평을 통해서 관찰되는 아비멜렉 이야기의 다양한 모호성들은 새로이 제시하는 구조주의적 패턴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본문 분석과 세 개의 불명예 패턴(Tri-Dishonoring Pattern)

1) 아비멜렉과 세 개의 불명예 패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9장 50절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를 영웅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비멜렉과 관련된 본문의 표현법과 단어들은 서사비평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다양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등장인물의 과영웅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여러 요소들로 작용한다. 아비멜렉을 통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비멜렉의 화법은 독특하고 대단히 설득적이다. 그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삿 9:2) 라고 외쳤다.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은 성전에서 화폐를 담당하는 힘이 있는 청중들을 설득하게 된다. 그는 교묘하고 숙련된 달변인으로 묘사되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삿 9:3) 칭하였다. 아비멜렉은 힘이 있는 지도자들을 형제로 만들게 되었고, 형제라는 표현은 마치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의 문학적 초점은 아비멜렉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의 등장인물로서의 성격이 나열되고 있다.

37) Stone, 윗글 (2007), 184.

둘째, 아비멜렉의 경제 관리 능력은 그를 능력 있는 경제적 책략가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성경 본문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삿 9:4)라고 기술한다. 그 은 칠십 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었고 자기 수하의 군대를 조직하였으므로 실은 오히려 경제적인 유동성을 장악한 듯 보인다. 이는 아비멜렉의 멋있는 발언과 연설이 가져다준 재물이다. 특별히 우리는 70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잔 알버트 소긴(J. Alberto Soggin)에 의하면 70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아주 많은 양을 뜻한다고 주장한다.³⁸⁾ 우리는 70이라는 숫자가 사사기 9장에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관련하여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70이라는 숫자가 그에게 과장된 성격을 부가시키는 서술적 의도로 보아야 한다. 7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코드는 아비멜렉을 과장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셋째, 아비멜렉의 육체적 능력이 과장되게 표현되어있다. 본문은 다섯 번씩이나 계속 “그의 칠십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곧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그것도 한 돌 위에서-다 죽게 될 형편이다. 군사적 능력을 갖춘 영웅으로의 표현은 사사기 9장 5절에 나타나 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 절은 곧 아비멜렉의 전사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 바위 위에서 아비멜렉은 칠십 형제를 죽였다. 이 장소를 상상해 보라. 칠십 명의 형제들이 죽기를 기다리며 한 줄을 서 있고 하나가 돌 위에서 죽임을 당하면 다른 하나는 다시 그 돌 위에 누워야 한다.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자가 있던가? 칠십 명의 형제를 한 돌 위에서 죽였으며 다른 백성

38) J. Alberto Soggin, *Judge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168.

들도 죽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이미 불량배와 같은 조직의 수장이므로 이들을 동원하여 연속적인 강제 처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⁹⁾ 그러므로 물론 아비멜렉의 육체적 힘과 능력이 이 상황에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저자는 여전히 아비멜렉의 우수한 군사적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의 주목할 점과 더불어 아비멜렉은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삿 9:22)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삿 9:48). 아비멜렉의 이름 또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이미지는 지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육체적으로도 강한 남자로 비치고 있다. 그는 우수한 지도력을 겸비하였으며 강력한 군사적 지휘관이다. 즉 그는 영웅이다. 부가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요담우화에서 지적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부정적 이미지는 아비멜렉의 과영웅화가 9장 전체에 걸쳐서 발전되고 있음을 방해하고 있다. 요담우화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의견은 사사기 9장이 형성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 이야기로서 이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⁴⁰⁾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과영웅화의 요소들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지라도 요담우화에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과장된 위세의 표현등은 역시 아비멜렉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 50절에 등장할 때 이 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장된 요소를 가지고 과영웅화 되어 등장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손쉽게 데베스 성읍을 탈환하였다. 본문은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라고

39) Steinberg, *뮈글*, 56; Boling, *뮈글*, 183; Katie M. Heffelfinger, “My Father is King: Chiefly Politics and the Rise and Fall of Abimele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no. 3 (2009), 292.

40) Karin Schöpfunglin, “Jotham’s Speech and Fable as Prophetic Comment on Abimelech’s Story: the Genesis of Judges 9”, *JSOT* 18, no. 1 (2004), 3, 21.

설명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급한 표현으로의 동사들은 לָקַח (할락/가다), לָקַח (하나/진치다), לָקַח (라카드/점령하다)로서 아비멜렉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며 그의 영웅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본문은 아비멜렉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과영웅화의 이미지에서 처음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사사기 9장 51절은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라고 상황을 설명한다.

아비멜렉의 탈영웅화(de-heroization)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은 그가 점령한 성읍에서 발생한다. 이미 아비멜렉은 성읍을 점령하였으나 모든 백성의 남녀가 망대로 도망하였으므로 그는 여전히 그 성읍 백성을 아무도 죽이거나 잡을 수가 없었다. 화자는 처음으로 아비멜렉에게 이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과영웅화된 아비멜렉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두 번째 탈영웅화 요소는 그가 자리한 위치에서 발생한다. 그는 이제 מִצְדָּתְךָ (믹달오쯔/견고한 망대) 앞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야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아비멜렉이 키가 높은 견고한 망대 앞에서 있는 모습으로 그의 영웅적인 면을 감소시킨다. “견고한 망대”라는 히브리 단어가 주는 문학적 코드는 단어의 회소성과 상징성이다. 구약성경에서 “견고한 망대”는 오직 시편 61편 3절과 잠언 18장 10절에만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른 표현을 의미한다.⁴¹⁾ 즉 아비멜렉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과는 달리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으며 화자가 사용한 이 단어는 곧 장애물이자 그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듯하다. 세 번째는 요소는 사사기 9장 52-53절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어이없는

41) 참조: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 이대(시 61:3);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전략에서 나타난다. 화자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득이 없었던 무의미한 공격이다. 망대 아래는 전술상 가장 위험한 곳이며, 장군이나 지휘자가 먼저 달려 가야 할 위치가 아니다. 모호하게도 아비멜렉은 망대를 불사르려 하였고, 그의 서두르는 모습과 표현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는 아비멜렉을 궁지로 몰고 있다. 지금까지 과영웅화되어 있었던 아비멜렉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화적 개념을 담고 있는 이념소들 혹은 초점에 의하여 다시 평가되고 있다. 본문은 급하게 “한 여인이 멧돌 위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고 말한다. 겨우 바로 전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약 천 여명을 죽였다(삿 9:48-49).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그의 비상한 전략은 어디로 가고 그는 위험에 처했다.

화자는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성취와 영웅적 위업을 무너뜨리고 아비멜렉의 영웅적 요소는 제거되는 초점의 변화를 주고 있다. 어떻게 영웅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이름 없는 여인의 무기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멧돌 위 짝이었다. 아비멜렉의 두개골은 깨어졌고 화자는 그의 죽음을 애타갈 순간을 비아냥거리듯 전달한다. 화자가 사용한 그 여인은 이름도 없으며 이는 아비멜렉의 수치와 불명예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과영웅화되었던 아비멜렉에게 독자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이제 아비멜렉은 조롱과 수치와 탈영웅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전영웅화(trans-heroization)가 발생하며, 즉 아비멜렉의 영웅적 요소는 사라지고 그 영웅적 요소는 ‘이름 없는 여인’으로 전달된 것이다. 이 전영웅화 과정은 발이 사용하는 초점화가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본문에서 극명하게 변화되는 초점화의 진행을 의미한다. 특별히 발이 사용하는 젠더 코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 중심적 초점화로부터 얻게 되는 명예와 불명예의 관계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비멜렉과 이름 없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짧게 나타나는 본문들의 표현을 통하여 여성과 극명히 대비되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이에 관련한 의미론적인 성경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⁴²⁾

논의하였던 발의 문학적 개념인 초점화와 코드를 중심으로 독자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모든 문학적 표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발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등장인물의 초점화를 예민하게 보아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고 시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³⁾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자세한 일들과 본문의 표현 그리고 단어들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화자의 메시지이며, 독자의 관점에 따라서 불안정한 양면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블링이 제시한 것처럼 모든 문학에서 발견되는 구조화된 경향들을 읽어내는 것은 문학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이다.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문학적 순서를 보여주며 이는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도 적용되어 진다. 특별히 명예/수치 연구와 젠더 연구가 각 등장인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이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적용이며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모호성은 탈영웅화의 근거로 작용되어짐을 제시한다.

2) 이름 없는 여인과 세 개의 불명예 패턴

아비멜렉의 전영웅화를 통하여 이름 없는 여인은 영웅이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며 영웅적 요소를 더하였으나 이 여인이 던진 돌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화자는 독자로 하여금 이 여인에게 주목하게 하였으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42) Bal, *읽기*(1988, 4), 115-124.

43) Bal, *읽기*(1988, 7), 237.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보는 그녀는 데베스에 산다는 것이다. 여자가 전쟁이 나면 싸우는 것은 일반적인가? 그 여인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그 망대는 얼마나 넓었을까? 왜 여인은 멧돌 위쪽을 사용하였을까? 어떻게 그 멧돌을 성루의 위로 옮겨가져왔을까?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을 비교해본다면 왜 이 여인은 아무런 칭송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 이 여인이 행한 업적을 생각한다면 화자는 반드시 이 여인의 이름과 정체성과 사회적 정보를 밝혀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정보는 없지만, 이 여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과영웅화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망루의 꼭대기 옥상에 서 있었고 그곳은 독자들이 여인에게 기대할 만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붕 옥상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가장 전초지이고 남자 군인들이 정찰하며 적들과 직접 마주하는 곳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전쟁에 가담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도를 통하여 여인은 과장된 이미지를 얻고 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여자들도 그들 스스로 전쟁에 가담하였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본문의 이 짧고 빠른 이야기 가운데 고대 시대의 타워 전쟁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여인의 이미지는 역시 의도된 것이다. 여인은 전사의 모습으로 혹은 남자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망루의 꼭대기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포함하며 모호성을 간직한 채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수치를 안김으로 명예로운 처우를 받게 되었다.

둘째, 이름 없는 여인은 망루의 꼭대기에서 멧돌 위쪽을 집어 던졌다. 그냥 생겨난 일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멧돌이 왜 망루 꼭대기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스톤은 주장하기를 그 당시의 멧돌은 훨씬 큰 크기이며 여인이 쉽게 들어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여인이 스스로

맷돌 위 짱을 던질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⁴⁴⁾ 그에 연구에 의하면 맷돌을 집어 던진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맷돌은 상당히 상징적이며 과장되었다고 동의하였다.⁴⁵⁾ 이야기 안에서 맷돌 위 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맷돌은 망루로 피하여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생존과 방어를 위해서라면 맷돌은 계속 진행되는 망루 안에서의 삶을 연명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맷돌은 그들의 존재이며 농경민으로서의 삶을 특징짓는 출처이다. 이 이야기에서의 맷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초점화 되는 것은 정치적 세력과 군사적 제도의 통치권 밖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인의 맷돌 사용은 이 여인의 성취를 더욱 강조하며 강화하고 있으며, 포위를 대비할 전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이 여인은 결정적으로 아비멜렉을 제압하였다. 아비멜렉이 이 망루에 오기 전까지는 훈련된 군사들도, 그의 칠십 형제들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름 없는 여인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는 기사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독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과 그 결과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아비멜렉의 전영웅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과영웅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녀는 적군의 대장을 막았고 죽게 될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여인의 결정은 과영웅화되어 있으며 아비멜렉과 여인, 장수와 주부, 아래와 위, 선점과 방어라는 여러 가지의 대조된 표현 기법을 통하여 젠더 연구와 명예/수치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호성 및 간학문적(intertextual) 영향을 담고 있다. 보르디외와 스톤이 주장하는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로 하여금

44) Stone, 윗글 (2007), 196.

45) George F. Moor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udges* (ICC 7;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6), 268; Tammy J. Schneider, *Judges*, (Collegeville, Minn. The Liturgical Press, 2000), 148; Stone, 윗글 (2007), 196; Athalya Brenner(ed.), *Judge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13.

독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전이해에 깊게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읽는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읽기를 제공하게 된다.⁴⁶⁾

물론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과영웅화된 이미지들은 곧 탈영웅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비멜렉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비멜렉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화자는 그 여인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으나 아비멜렉은 즉시 청년을 소환함으로써 그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전하고 있다.(삿 9:54) 아주 짧지만, 이 여인의 탈영웅화는 진행되었으며 이야기의 초점은 곧 다른 등장인물로 옮겨간다. 이 여인의 탈영웅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본문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과영웅화가 되었으나 아비멜렉의 완전한 죽음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실패한 임무의 모형이다. 아비멜렉의 승승장구를 저지했던 여인은 이야기에서는 그림자로 사라져버렸다. 이야기의 초점화는 그녀의 실패를 통하여 탈영웅화를 진행하고 이어서 전영웅화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 초점화의 대상은 바로 청년이다.

3) 청년과 세 개의 불명에 패턴

청년은 아비멜렉의 갑옷을 나르고 입히는 종으로서 화자는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아비멜렉이 급히 불렀다고 기술한다. 그는 항상 아비멜렉과 함께 전장을 다니는 자였다. 갑옷 시종의 역할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적과 대항하여 주인과 함께 싸우기도 하였고(삼상 14:13), 전장에서 주인을 호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삼상 14:7), 주인의 갑옷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인에게로 옮겨 왔던 이야기의 초점이 갑옷 시종 청년에게로 전이되면서 그 청년은 영웅화가 일어나는데

46) Bourdieu, 윗글, 20-21; Stone, 윗글(1996), 40-41.

이 청년의 이미지도 과장되게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청년은 아비멜렉 이야기의 중심 등장인물이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을 가볍게 처단하였다. 사사기 9장 54절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갑옷 시중을 급히 불렀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하니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찌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라고 청년에게 명령한 것이다. 화자는 지적하기를 청년이 아비멜렉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그를 찔렀음을 말하고 있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화자의 처지에서 보면 청년의 마지막 행동, 즉 칼로 찔러 아비멜렉을 죽인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여인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도 이야기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그의 발언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임을 스스로 지적하였다. 청년은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을 명예스럽게 죽게 할 수 있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매듭짓는 초점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짧은 설명이지만 어떻게 화자가 청년의 행동을 과장되게 설명하는지는 갑옷 시중의 역할을 생각하면 더 확실히 드러난다. 이미 설명했듯이 갑옷 시중은 그의 일에 대하여 지극한 성실성과 고결함(integrity)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달리 표현되고 있다. 갑옷 시중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인을 칼로 찔렀으며 갑옷 시중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갑옷 시중의 역할을 생각하자면 청년은 주인을 오히려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인을 찌른 그의 행동은 사실 과장되어 있음이 맞다. 이 과장된 이미지는 청년이 요담의 우화(삿 9:7-21)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담 우화에서 아비멜렉의 최후를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기사는 이야기의 플롯(plot)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점이

다. 요담 우화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에서부터 불이 나와 강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의미로 불 때 훨씬 더 약한 갑옷 시중이 강력한 아비멜렉의 최후를 칼로 찢러 마무리하는 것은 상통하는 연결점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 나타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이다. 다윗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칭하고 있다. 그는 묻기를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쪽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다. 다윗의 표현에서 이 이스라엘 민담이야기는 갑옷시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며 아비멜렉을 오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전술상 실수를 한 어떤 용사로 기억한다. 여인에 의한 죽음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 분명하다.

셋째, 갑옷 시중의 과장된 행동들은 상응하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 삼상 31장 3-4절에는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며 아비멜렉의 최후와 상당히 흡사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사울은 상처를 입고 그의 갑옷 시중에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의 시중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였다. 시중의 거절 때문에 사울은 급기야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 이 상황을 본 갑옷 시중은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는 결정을 하게 된다. 야엘 쉘메쉬(Yael Shemesh)와 같은 학자들은 이를 갑옷 시중의 충성심의 표시로 생각한다.⁴⁷⁾ 이는 일반적으로 갑옷 시중이라면 꼭 보여주어야 할 충성심이다. 띠오도르 제닝스(Theodore Jennings)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고대근동의 이해 안에서 갑옷 시중이 그의 주인을 살해

47)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37, no. 3 (2009), 162. 갑옷시중의 충성심으로 해석하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H. D. M. Spence-Jones, *The Pulpit Commentary: 1 Samuel* (Bellingham, WA: Logos Research Systems, Inc., 2004), 562; Kenneth L. Chafin, *1, 2 Samuel* (PCS 8;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89), 213.

하는 즉각적인 행동은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시종에게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한 응당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⁴⁸⁾ 또한 아비멜렉의 시종은 사울의 갑옷 시종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스스로 자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시종이 행한 살인은 이야기 안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영웅을 제거하는 업적임과 동시에 배신자가 취하는 행동으로서 시종의 탈영웅화를 초래하게 된다.

청년의 탈영웅화는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예/수치 연구에서 바라보는 청년의 사살 행동은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명령에 순종한 군인으로 혹은 주인을 살인한 종으로, 젠더 연구에서는 파트너를 죽인 여성적 모델로 혹은 관계를 끊어버린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한다.⁴⁹⁾ 지금까지 분석한 패턴에 의하면 청년은 탈영웅화 되었고 전영웅화는 일어났다. 본문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기술한다. 더 이상 청년에게 초점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산을 통하여 한 곳으로 반복적으로 집중되었던 이야기의 초점이 분산되고 화자의 마지막 해설에 집중될 수 있도록 55절은 문학적 단절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탈영웅화와 전영웅화는 곧 이야기 안에서 초점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며, 화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값으셨다는 결말의 미언으로 진행되고 있다.(삿 9:56)

6. 나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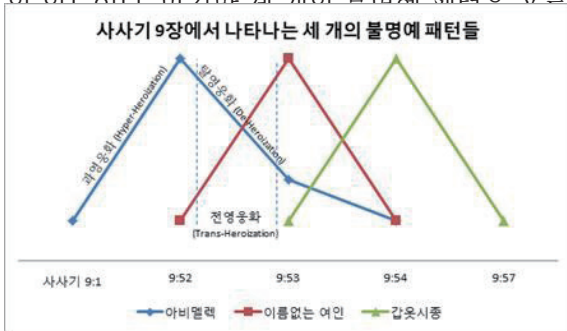
아비멜렉의 이야기 안에는 서사이론과 구조주의 비평 접근 방식에서

48) Theodore W. Jennings, *Jacob's Wound: Homoerotic Narrative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Israel* (New York: Continuum, 2005), x-xi.

49) 윗글, 4.

말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념을 담고 있는 문학적 코드들과 패턴이 있다. 또한, 명예/수치 연구와 젠더비평의 연결점은 왜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죽기를 원치 않았으며, 명예/수치 연구가 주장하는 성에 대한 선호도가 문화적으로 이념소(ideogemes)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⁵⁰⁾ 본 논문은 문학으로서의 이야기의 초점(focalization)이 화자가 사용하는 문학적 기술로서의 과영웅화, 탈영웅화, 그리고 전영웅화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을 불명예와 수치로 꾸미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이야기는 독자들의 관심(attention)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고 보전시키며 강조된 접근을 화자의 의도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화자는 고도의 구성된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 속에서 의도된 내용을 전달하며 독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화자는 세 개의 불명예 패턴(tri-dishonoring pattern)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에 담겨있는 코드들을 사용하며 아비멜렉,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청년에게까지 사용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각 인물이 모두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이야기 안에서 과영웅화되어 있고 곧 탈영웅화되며 이어서 전영웅화의 패턴을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음으로 등장할 영웅에게 꾸준히 문학적 초점을 넘기고 있는데 이는 이야기의 특별한 진행을 위한 화자 이인드이다. 하지만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은 꼭 나타내면 다음과 같



50) 참고 Stone, 윌글 (2007), 183-197.

트렌트 버틀러(Trent C. Butler)는 본문을 해석하며 “하나님만이 최후 승자이며 이야기 안에서 그의 부재가 있을지라도 왕으로서의 강한 현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⁵¹⁾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화자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가 준비한 고도의 문학적 패턴을 통하여 독자들은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으나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본문은 끝까지 참으시며 악한 영을 보내어 아비멜렉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에 주목하고 있다.(삿 9:22-23) 사사기 9장이 신명기 사가의 인과응보 사상을 나타내며 잘못된 지도자의 최악의 끝을 심판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수치스러운 아비멜렉의 끝은 그의 잘못된 시작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칠십 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크나큰 악행이었고 이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인과응보의 메시지인 것이다.(삿 9:56-57) 또 다른 학자들은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유배는 이스라엘의 불복종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하나님의 인준을 받지 않은 아비멜렉의 왕권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문학적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짧은 이야기 단락 안에서 서도 등장인물들에게 숨어있는 다양하고 첨예한 문학적 기교들을 비평하고, 결국 인간이 영웅화되어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 구조, 사회 구조, 성에 대한 인식, 명예와 수치에 대한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화자가 결국 이러한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51) Trent C. Butler,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250.

통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이 보여주듯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구조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결국 쓰디쓴 결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⁵²⁾ 불명예 패턴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마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패턴은 어떻게 화자가 등장인물과 자료들을 사용하여 모호성이라는 문학 기교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다음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야기는 골리앗이라는 등장인물로 시작한다. 골리앗의 이미지는 과장되어있으며 감히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적으로 묘사된다(삼상 17:4-7). 이 과장된 이미지들은 골리앗의 과영웅화를 의미하며 다윗의 무기였던 다섯 개의 돌들 중에서 한 개에 의하여 무너지는 골리앗의 모습은(삼상 17:49) 탈영웅화와 전영웅화를 아우르는 초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모두 명예와 수치 연구와 연관이 있으며 세 개의 불명예 패턴의 한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7.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2017. 3. 28.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

52) 사사기 전반에 걸쳐 신명기사가의 편집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권 4호 (2016년 12월), 250-284.

- 조”, 「구약논단」 22권 4호 (2016년 12월), 155-191.
- 김인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권 4호 (2016년 12월), 250-284.
- _____, 「사사 시대에 등장한 왕국 건립의 시도들」, 「구약논단」 12집 (2002), 38-40.
-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아 1장 연구」, 「구약논단」 21집 (2006년 8월), 108-124.
- Bal, Mieke.,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_____, *Murder and Difference: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Indiana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Boogaart, Thomas A., 「Stone for Stone: Retribution in the Story of Abimelech and Sheche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2 (1985), 45-56.
- Bourdieu, Pierre., *Masculine Domin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Brenner, Athalya., *Judge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 Butler, Trent C.,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 Chafin, Kenneth L., *1, 2 Samuel* (PCS 8;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89).
- Fritz, Volkmar., 「Abimelech und Sichem in Jdc. 9」, *Vetus Testam-*

- mentum 32, no. 2 (1982), 129-144.
- Ge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Gilmore, David., *Honor and Shame and the Unity of the Mediterranean* (Washington, DC: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87).
- Gunn, David M., and Danna N. Fewell,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effelfinger, Katie M., “My Father is King’: Chiefly Politics and the Rise and Fall of Abimele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no. 3 (2009), 277-292.
- Jennings, Theodore W., *Jacob’s Wound: Homoerotic Narrative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Israel* (New York: Continuum, 2005), x-xi.
- Jobling, David., “Structuralist Criticism: The Text’s World of Meaning”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by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Kooij, Arie Van Der., *The Oracle of Tyre: The Septuagint of Isaiah XXIII as Version and Vision* (Boston: Brill, 1998).
- Kreuzer, James, R., *Elements of Poetry* (New York: Macmillan, 1955).
- Moore, George F.,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udge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7;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6).
- Niditch, Susan.,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Patnoe, Elizabeth., “Hyperbole”, Theresa Enos(ed.),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Garland Pub, 1996).
- Reviv, Hanoeh., “The Government of Shechem in the El-Amarna Period and in the Days of Abimelech”, *Israel Exploration Journal* 16, no. 4 (1966), 252-257.
- Schöpflin, Karin. “Jotham’s Speech and Fable as Prophetic Comment on Abimelech’s Story: the Genesis of Judges 9”, *JOT* 18, no. 1 (2004), 3, 21.
- Schneider, Tammy J., *Judges* (Berit Olam; Colleegeville, Minn. The Liturgical Press, 2000).
- Shemesh, Yael “Suicide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37, no. 3 (2009), 162.
-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Terms, Forms, Technique, Criticism* (Boston: Writer, 1970).
- Soggin, J. Alberto., *Judge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Spence-Jones, H.D.M., *The Pulpit Commentary: 1 Samuel* (Bellingham, WA: Logos Research Systems, Inc., 2004).
- Steinberg, Naomi., “Social-Scientific Criticism: Judges 9 and Issues of Kinship”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6-64.
- Stone, Ken., “Gender Criticism: The Un-Manning of Abimelech”, Gale A. Yee(ed.),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7), 183-201.

_____, *Sex, Honor, and Power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96).

Wright, G. R. H., "The Mythology of Pre-Israelite Shechem", *Vetus Testamentum* 20, no. 1 (1970), 75-82.

검색어

사사기 9장

아비멜렉

서사이론

구조주의비평

명예수치연구

젠더비평

Tri-Dishonoring Pattern in the story of Abimelech

Kyung-Sik Park

Lecturer at Mokwon Universit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Ph.D.

Re-reading Abimelech's story (Judg 9:50-54) with the literary approaches, such as narratology, structural criticism, honor/shame study, and gender criticism interprets and multiplies the text's own meaning that seems to be hidden by narrator's literary strategy. This re-reading, especially with gender criticism, provides a counter explanation through 'gender-based shame,' explaining how honor and shame are described by gender preference. My reading suggests a further approach toward the focalization in which the narrator employs the method of removing hyper-heroization, and to emphasize an intention to dishonor characters step-by-step. As a result, the

www.kci.go.kr

narrative exposes its concentration on the approaches employed to catch readers' attention effectively. In other words, the author uses highly-constructed methods of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in the narrative.

This study employs a scheme of three terms (hyper-heroization, de-heroization, and trans-heroization), which I call a tri-dishonoring pattern. The pattern continually occurs in Judges 9 with Abimelech, the unnamed woman, and the young man, whether the character is male or female, until they are removed/veiled from the text. Even though each character appears to have committed a violent action, he/she is just hyper-heroized, de-heroized soon, and then trans-heroized. Therefore, all characters are victimized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a constant focus toward the next character, continuing to the end of the pattern.

One might see Judges 9 as a valid model of the retribution theme resulting from the Deuteronomistic viewpoint in order to judge the final end of the sinfulness of the wrongdoing. The inglorious end of Abimelech appears as retaliation for his cruel beginning. Others might interpret that the final text explains that the Babylonian exile was inevitable due to the disobedience of Israel. In this case, the text could be blaming Abimelech's attempt to seize what should have been a divine initiative. However, my reading suggests a possibility of reading a literary pattern that alludes to the realization that God is at the end of the pattern. This theological approach describes the fact that, even though Judges continues to illustrate how to rule/lead the people, the people could not rely on the political systems which they experienced as having bitter ends.

Further studies of this pattern should be considered throughout the narratives of the Hebrew Bible. Such a reading contributes to figuring out how the narrator manipulates the characters and employs their own resources by using ambiguity as a literary technique. The presence of such a pattern suggests that all characters are potentially limited in reputation and agency, and that these limitations are crucial for the production of meaning.

Keywords

Judges 9

Abimelech

Narratology

Honor/Shame Study

Gender Criticism

■ 투고일: 2017년 6월 28일

■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www.kci.go.kr